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Estimating the Longitudinal Change in Academic Achievemen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Piecewise Growth Modeling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1차년도(2011년, 초4)부터 6차년도(2016년, 중3)까지의 6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초등학교 시기(초4-초6), 중학교 시기(초6-중3)로 변화율을 다르게 추정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변화 성장모형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학교 시기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학업성취 초기치(초4)는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방입적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1(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학업성취의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 2(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who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nd examine the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f the changes using piecewise growth modeling. For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data from 1st to 6th waves (4th-9th grade)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iecewise growth function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explain chang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with respect to the time of vacation. Seco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declined constantly and was great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parental efficacy, self-esteem, and support from frien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hile uninvolved parenting and acculturation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itial value of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upport from friends in the 4th grade prohibit its decline in the first change rate of academic achievements. Meanwhile, acculturation stress for 4th-grade students accelerates the decline of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 Academic Achievement,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Piecewise Growth Model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February 24, 2020

Accepted July 3, 2020

Revised March 31, 2020

Published July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업성취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1 재인용]. 많은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업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2-3]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간 학업성취 차이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급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어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학교급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학생 수준 변인과 학교 수준 변인의 영향이 다를 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 능력 및 기술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을 의미하는 부모(양육)효능감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6]. 이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대처 능력, 동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7 재인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8 재인용]. 반면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일상의 양육 장면에서 요구되는 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교육참여 수준 또한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9].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지원행동, 부모교육참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0-11].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양육효능감은 학교교육 참여, 학습지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2-13].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지원을 하지 않고, 무관심의 특징을 보이는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 및 정서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6].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유해환경 접촉 비율 및 휴대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

도는 사회적 위축, 우울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20].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기 가치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존중감[21 재인용]은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2]. 자아존중감은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하는 변인 중 하나이며[23], 결과적으로 학업소진, 학업중단의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23-25].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학교생활적응,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6-31].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3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높은 반면,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35].

청소년기는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36 재인용], 친구 지지의 지각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적절한 대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37]. 특히 친구의 지지는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38],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9-40].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은 횡단적 측면에서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교에 집중하거나, 일부 중단 연구 또한 학교급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변화모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의 변화양상이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분할함수 성장모형(piecewise growth modeling)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 1)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 2)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 6개 년도 자료(초4-중3, 2011년-2016년)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이며[41],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와 자녀의 1,277 가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학업성취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6차년도, 2016년)까지의 학업성취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였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5점)' 중 하나에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 = .74$, 2차 $\alpha = .74$, 3차 $\alpha = .79$, 4차 $\alpha = .79$, 5차 $\alpha = .81$, 6차 $\alpha = .82$ 이다.

2.2.2 부모효능감

학부모의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9문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 = .78$, 3차 $\alpha = .83$ 이다.

2.2.3 방임적 양육태도

학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차 5문항, 3차 7문항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 = .80$, 3차 $\alpha = .77$ 이다.

2.2.4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9문항(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 제거)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 = .83$, 3차 $\alpha = .86$ 이다.

2.2.5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4문항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 = .75$, 3차 $\alpha = .81$ 이다.

2.2.6 친구의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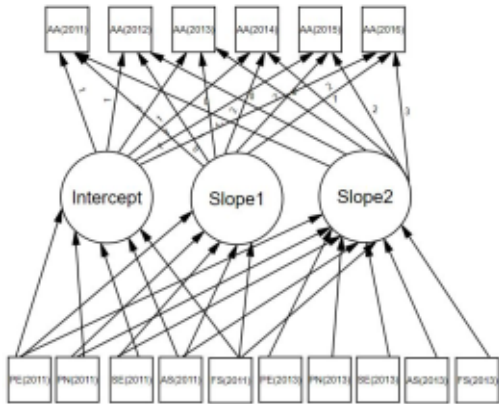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 수준이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7문항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alpha = .96$, 3차 $\alpha = .97$ 로 확인되었다.

2.3 분석 방법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Mplus 8.3과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업성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하였으며,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변화, 분할함수를 비교하여 최적의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1차 시점)와 중학교(2차 시점)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였다. 이때 초기치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1로 고정하고, 1차 시점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는

[0, 1, 2, 2, 2, 2]로, 2차 시점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는 [0, 0, 0, 1, 2, 3]으로 부여하였다[42]. 둘째,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 분석에서는 최적의 성장모형으로 선택된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방임,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효과를 추정하였다.



※ AA: Academic achievement, PE: Parenting efficacy, PN: Parental neglect, SE: Self-esteem, AS: Acculturative stress, FS: Friend's support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년도(2011년)에 기초한 분석 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628명(49.2%), 여자 649명(50.8%)이며, 연령은 9세 94명(7.4%), 10세

1,134명(88.8%), 11세 43명(3.4%), 12세 5명(.4%), 13세 1명(.1%)이다. 어머니 출신국가는 대한민국 39명(3.1%), 중국(한족, 기타민족) 88명(6.9%), 중국(조선족) 232명(18.2%), 베트남 34명(2.7%), 필리핀 329명(25.8%), 일본 444명(34.8%), 태국 48명(3.8%), 기타 63명(4.9%)이다. 아버지 출신국가는 대한민국 1,172명(91.8%), 중국(한족, 기타민족) 2명(.2%), 중국(조선족) 1명(.1%), 베트남 2명(.2%), 필리핀 4명(.3%), 일본 16명(1.3%), 기타 14명(1.1%), 무응답 66명(5.2%)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77)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628	49.2
	Female	649	50.8
Child's age	9	94	7.4
	10	1,134	88.8
	11	43	3.4
	12	5	.4
	13	1	.1
Mother's nationality	Korea	39	3.1
	Chinese	88	6.9
	Ethnic Korea	232	18.2
	Vietnam	34	2.7
	Philippine	329	25.8
	Japan	444	34.8
	Thailand	48	3.8
Father's nationality	Etc	63	4.9
	Korea	1,172	91.8
	Chinese	2	.2
	Ethnic Korea	1	.1
	Vietnam	2	.2
	Philippine	4	.3
	Japan	16	1.3
nonresponse	Etc	14	1.1
		66	5.2

Table 2. Model fit indicators for no growth, linear, quadratic, and piecewise growth models

Model	χ^2	df	CFI	TLI	RMSEA(90% C.I.)	SRMR
No growth	1148.080***	19	.678	.746	.214(.204-.225)	.229
Linear	281.607***	16	.924	.929	.113(.102-.125)	.071
Quadratic	251.254***	12	.932	.915	.124(.111-.138)	.063
Piecewise	221.311***	12	.940	.925	.116(.103-.130)	.05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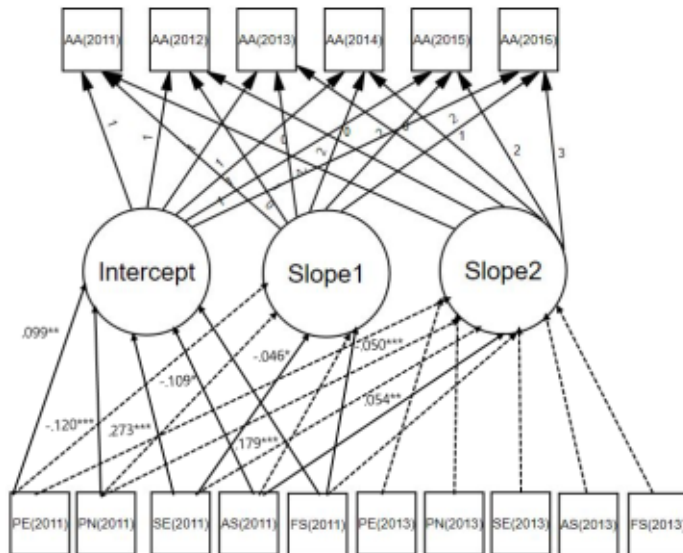
Table 3. Unconditional model results of the piecewise growth analysis model

Model	Means	Variances	Correlations
I	3.403***	.246***	S1 with I
S1	-.027**	.019**	S2 with I
S2	-.103***	.023***	S1 with S2

I: Intercept, S: Slope. * p<.05, ** p<.01, *** p<.001

Table 4. Conditional model results of the piecewise growth analysis model

	Unstandardized estimates	SE	Standardized estimates
Covariates predicting the intercept			
Parenting efficacy(2011)→I	.099**	.031	.104
Parental neglect(2011)→I	-.120***	.027	-.148
Self-esteem(2011)→I	.273***	.034	.299
Acculturative stress(2011)→I	-.109*	.043	-.086
Friend's support(2011)→I	.179***	.021	.318
Covariates predicting the slope 1			
Parenting efficacy(2011)→S1	.005	.018	.018
Parental neglect(2011)→S1	.022	.015	.099
Self-esteem(2011)→S1	-.046*	.019	-.184
Acculturative stress(2011)→S1	-.033	.025	-.094
Friend's support(2011)→S1	-.050***	.012	-.326
Covariates predicting the slope 2			
Parenting efficacy(2011)→S2	-.023	.014	-.081
Parenting efficacy(2013)→S2	.004	.013	.014
Parental neglect(2011)→IS2	-.020	.011	-.082
Parental neglect(2013)→IS2	-.023	.012	-.078
Self-esteem(2011)→S2	.012	.014	.043
Self-esteem(2013)→S2	.004	.014	.014
Acculturative stress(2011)→S2	.054**	.018	.140
Acculturative stress(2013)→S2	-.006	.016	-.017
Friend's support(2011)→S2	-.010	.009	-.057
Friend's support(2013)→S2	-.005	.009	-.030



I: Intercept, S: Slope. AA: Academic achievement, PE: Parenting efficacy, PN: Parental neglect, SE: Self-esteem, AS: Acculturative stress, FS: Friend's support. * p<.05, ** p<.01, *** p<.001

3.2 학업성취 변화패턴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학업성취 변화패턴을 검증하기 위해 무조건모형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변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차변화 성장모형보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변화패턴을 더 이해하기 쉽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측면[42]을 고려하여 변화모형으로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한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교 시기까지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은 Table 3과 같다. 먼저, 초기치(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평균은 3.403, 1기 변화율(초등학교 시기)의 평균은 -.027, 2기 변화율(중학교 시기) 평균은 -.103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와 중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와 2기 변화율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2기 변화율이 더욱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는 더 가파르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42].

3.3 학업성취 변화에 대한 부모, 개인, 친구의 영향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의 설명력을 확인하는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hi^2=481.948(p<.001)$, CFI=0.895, TLI=0.848, RMSEA=.080, SRMR=.083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초기치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

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화율 1(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변화율 2(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을 탐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43-45]. 그리고 감소폭은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가 학업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인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문화 청소년은 학업 관련 영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와 중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가 학업성취 변화양상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치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가 학업 관련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2-13, 14-16, 23-25, 34, 39-40].

변화율 1(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원인을 찾은 후 키워주고,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변화율 2(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 후 이에 대한 상담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학업성취결과가 아닌 자기보고식 문항을 사용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업성취결과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으로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를 활용하였는데,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부모, 개인, 환경 변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학업성취의 초기치(초4)에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학업성취의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초등학교 시기에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 적응 및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일반 가정 청소년보다 학업 관련 부적응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학업 지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때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또래 관계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D. J. Madigan, "A meta-analysis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31, pp.967-989, 2019. DOI: <https://doi.org/10.1007/s10648-019-09484-2>
- [2] H. R. An, S. H. Yi, "Academic achievement: Comparison of childre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0, No.1, pp.1-10, 2009.
- [3] Y. D. Jo, E. J. Kang, H. K. Ko, "Analysis on the achievement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and North Korean migrant families by school classes in 2011 national assessment educational achievement", *School Mathematics*, Vol.15, No.1, pp.179-199, 2013.
- [4] M. Y. Song, S. S. Kim, H. S. Yi, "Investigation on contextual variable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24, No.2, pp.261-289, 2011.
- [5] J. H. OH, H. Y. Seon, "The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academic str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3, pp.1981-1994, 2013. DOI: <https://doi.org/10.15703/kjc.14.3.201306.1981>
- [6] T. L. Jones, R. J. Prinz, "Potential roles of parental self-efficacy in parentand child adjustment: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25, pp.341-363, 2005. DOI: <http://dx.doi.org/10.1016/j.cpr.2004.12.004>
- [7] D. C. Sims, A. J. Skarbek, "Parental self-efficacy: A concept analysis related to teen parenting and implications for school nurses",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Vol.35, No.1, pp.8-14, 2019. DOI: <https://doi.org/10.1177/1059840518755871>
- [8] N. A. L. Amin, W. W. S. Tam, S. Shorey, "Enhancing first-time parents'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universal parent education

- interventions' 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82, pp.149-162, 2018.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8.03.021>
- [9] N. E. Hill, K. R. Bush,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environmen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3, pp.954-966, 2001.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1.00954.x>
- [10] Y. H. Lee, K. M. Kim, "The effects of mother and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on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supports of learning",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8, No.4, pp.549-565, 2013.
DOI: <https://doi.org/10.18205/kpa.2013.18.4.004>
- [11] S. J. Lim, S. K. Jeon, "The influence of middle-high school parent's parenting stress, parent efficacy,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of parent education on child's life competency",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8, No.4, pp.123-137, 2016.
DOI: <https://doi.org/10.19031/ikheea.2016.12.28.4.123>
- [12] O. S. Cho, H. S. Bang, "The effects of daily life stress on the learning care style of multicultural par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arent 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8, No.4, pp.173-180, 2018.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18.8.4.173>
- [13] M. S. Kim, "A study on the change of parental self-efficacy and school education participation of foreign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latent growth model: Focus on parents of elementary 4th graders to 3rd graders in middle school",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7, No.1, pp.49-75, 2020.
- [14] H. J. An, "The longitudinal analysis about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adolescents'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2, pp.475-493, 2016.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6.16.12.475>
- [15] M. K. Chae, H. S. Kim,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ego-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0, pp.53-71, 2018.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8.10.25.10.53>
- [16] S. H. Lee, J. Y. Yo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lecting parental attitudes and children's emotion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7, pp.461-480, 2016.
- [17] Y. J. Cho,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al neglect on adolescent's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0, No.5, pp.115-124, 2012.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2.50.5.115>
- [18] Y. S. Park, A. N. Lim, "Influence of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on the mobile phone dependency mediated by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57, pp.57-84, 2018.
- [19] N. M. Hong, H. J.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Vol.8, No.2, pp.125-151, 2017.
- [20] S. J. Jeon, H. M. Yoon,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24, pp.153-179, 2013.
- [21] J. A. García, F. C. Y Olmos, M. L. Matheu, T. P. Carreño, "Self esteem levels vs global scores on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Heliyon*, Vol.5, No.3, e01378, 2019.
DOI: <https://doi.org/10.1016/j.heliyon.2019.e01378>
- [22] L. Fang, "Educational aspirations of Chinese migrant children: The role of self-esteem contextual and individual influenc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0, pp.195-202, 2016.
DOI: <https://doi.org/10.1016/j.lindif.2016.08.009>
- [23] N. K. Kim, G. B.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6, No.2, pp.255-280, 2019.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9.02.26.2.255>
- [24] J. S. Lee, Y. G. Lee, "The effect of parents' academic background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on of poverty, delinquency,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6, No.1, pp.65-88, 2011.
- [25] Y. O. Nam,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8, No.4, pp.251-274, 2016.
DOI: <https://doi.org/10.19034/KAYW.2016.18.4.11>
- [26] K. S. Lee,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f multicultural family's children on social adjustmen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44, No.1, pp.91-107, 2012.
DOI: <https://doi.org/10.35557/trce.44.1.201203.004>
- [27] J. M. Jeong,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13, No.3, pp.97-115, 2015.
- [28] H. N. Kim, E. Y. Son, "Relationship among the self-esteem, community spirit, and school adjustment

-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8, pp.361-381,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8.361>
- [29] D. H. Lee, “The mediated effects of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 pp.544-55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544>
- [30] H. L. Chang, R. H. Lee,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7, pp.189-218, 2019.
DOI: <http://dx.doi.org/10.20993/jssw.47.7>
- [31] M. H. Park,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10, No.4, pp.27-54, 2017.
DOI: <http://dx.doi.org/10.14328/MES.2017.12.31.27>
- [32] D. J. Park, “An analy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9, pp.175-184, 2019.
DOI: <http://dx.doi.org/10.22156/CS4SMB.2019.9.9.175>
- [33] H. Jiang, E. K.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psychological maladjustment: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62, pp.131-164, 2018.
DOI: <http://dx.doi.org/10.24300/jkscw.2018.06.62.131>
- [34] J. H. Kim,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ed by de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Vol.17, No.3, pp.115-124, 2019.
- [35] D. J. Park,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Vol.5, No.2, pp.57-74, 2019.
DOI: <http://dx.doi.org/10.36697/skya.2019.5.2.57>
- [36] K. Yearwood, N. Vliegen, C. Chau, J. Corveleyn, P. Luyten, “When do peers matter? The moderating role of peer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adversity, complex trauma,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in socially disadvantage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72, pp.14-22, 2019.
DOI: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9.02.001>
- [37] U. Pace, C. Zappulla, R. Di Maggio,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peer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Vol.18, pp.508-524, 2016.
DOI: <https://doi.org/10.1080/14616734.2016.1198919>
- [38] M. Y. Kwon, B. Y. Won,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Jeju province”, *Forum For Youth Culture*, Vol.54, pp.5-37, 2018.
DOI: <http://dx.doi.org/10.17854/ffyc.2018.04.54.5>
- [39] B. S. Jung,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teacher, and peer support on academic achievement by Korean young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3, No.2, 131-159, 2012.
- [40] H. M. Bae, C. W.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freshman: The role of academic self efficacy as a mediator”,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5, No.1, pp.79-93, 2018,
[41] <https://www.nypi.re.kr/archive>
- [42] S. K. Son, H. J. Lee, S. H. Hong, “The effects of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using a piecewise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3, pp.57-88,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3.57>
- [43] H. Y. Seon, H. C. Choi,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7, pp.657-672, 2016.
- [44] E. K. Paek, E. T. Lee, E. K. Lea, “The effect of parent career guidanc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stres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Forum For Youth Culture*, Vol.53, pp.5-31, 2018.
DOI: <https://doi.org/10.17854/ffyc.2018.01.53.5>
- [45] M. S. Kim, “A stud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hanges in academic adaptation and determina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The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Vol.8, No.4, pp.251-271, 2019.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